Prologue

The special exhibition < Imagine the Abyss> was planned with two questions in mind: "Why have human beings, who cannot breath under the sea, begun diving, and what is the meaning of the undersea world for human beings?" Humanity has been grateful for the existence of the sea, which has enabled people to maintain livelihoods. However, the sea has always been cold and rough, and the challenge of the sea has constantly been associated with great danger. In particular, 'diving' has been a dreaded activity because of the threat of loss of people's lives. Nevertheless, humanity has continued to battle against the rough seas.

From ancient times until now, humanity has longed for the vast undersea world. Across the ages and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the god of the sea has existed even in myth and folk tales. Moreover, human beings have continued dream- ing of this new world by freely imagining the undersea world. The desire of humanity to stay under the sea longer and to dive deeper has come true in real lif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fter having explored the deepest point of the Mariana Trench, known as the deepest part of the ocean, now humanity is dreaming of a new undersea world again.

The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is presenting the new undersea world, which humanity is dreaming of, portraying it in virtual reality utilizing state-of-the-art technology. We hope this exhibition would be an opportunity to look back on humanity's ideals and the infinite possibilities for imagina- tion of the underwater abyss that human beings can have.

실감형미디어아트 기획전

심

深

여 인

想

싱

修

관람안내

전시기간 2021. 5. 18(화) - 2021. 10. 10(일)

전시장소 국립해양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람시간 화 - 일요일 09:00 - 17:00 (마감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

* 매주 월요일 박물관 휴관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사전예약 코로나19에 따른 사전 온라인예약

* 예약은 관람일 최소 1일전까지 하셔야하며 방문하실 날짜 2주전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45 (동삼동 1156) 051-309-1900 https://www.knmm.or.kr/





ろうと

IMAGINE THE ABYSS

2021. 5.18. - 10.10.



기획전시 <심연의 상상>은 "바다 속에서 숨도 쉬지 못하는 인간들이 왜 잠수를 시작했으며, 인간에게 해저세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 두 가지 물음으로부터 기획되었습니다.

인류에게 바다는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늘 차갑고 거칠었으며, 바다로의 도전은 언제나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특히 '잠수행위'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두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거친 바다에 끊임없이 도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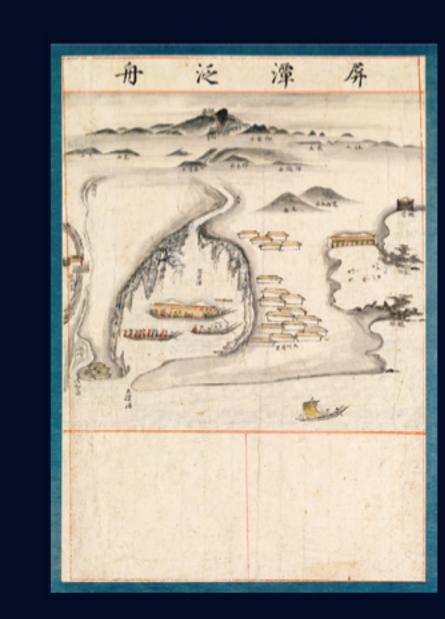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드넓은 해저세계를 동경해왔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화와 설화 속에서도 바다의 신이 존재해왔고, 인간은 끊임없이 해저세계에 대해 자유로이 상상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바다 속에 더 오래, 더 깊이 머무르고자 하는 인류의 소망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점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바다로 알려진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탐험한 인류는 이제 또 다시 새로운 해저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인류가 꿈꾸는 새로운 해저 세계를 가상현실로 제시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이 무한대로 가질 수 있는 심연의 상상에 대한 인문학적인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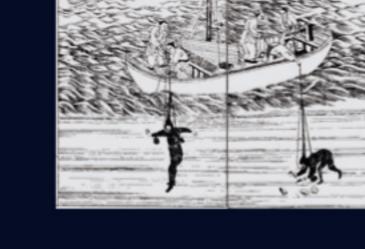
Humanity, begin diving

인류, 잠수를 시작하다

바다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는 물고기와 조개를 얻기 위해 바다 속으로 들어갔지만, 호흡의 문제로 오랫동안 바다 속에 머물 수 없었다. 바다 속은 과학기술이 발전되지 않은 인간에게는 가혹한 미지의 세계였다. 쉽게 다가갈 수 없는 해저세계에 두려움을 느낀 인류는 심해에 막연한 동경과 상상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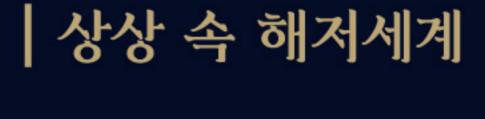




『**탐라순력도**』중 「병담범주」, 『천공개물』 다섯명의 해녀가 물질하는 모습 진주를 채취하는 잠수부



외이도 골종잠수병 흔적이 남아있는 두개골





잠수통을 타고 바다 속에 내려간 **알렉산더 대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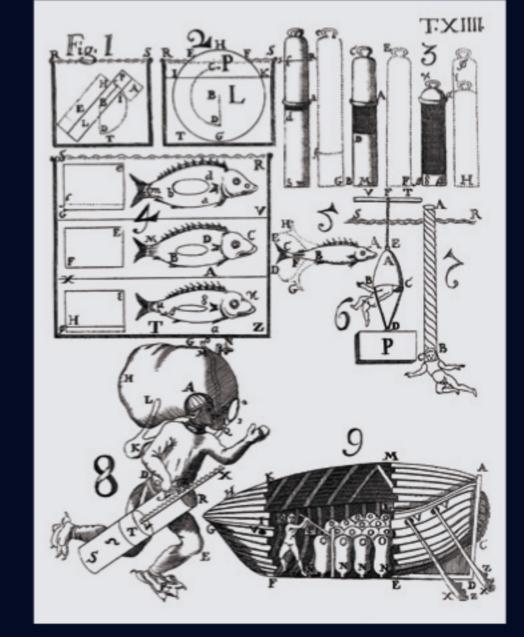
용왕과 해저세계에 대한 내용이 담긴 한국 전통소설 **별주부전과 심청전**

깊은 바다 속, 한계를 뛰어넘다

In the deep sea, pushing the lim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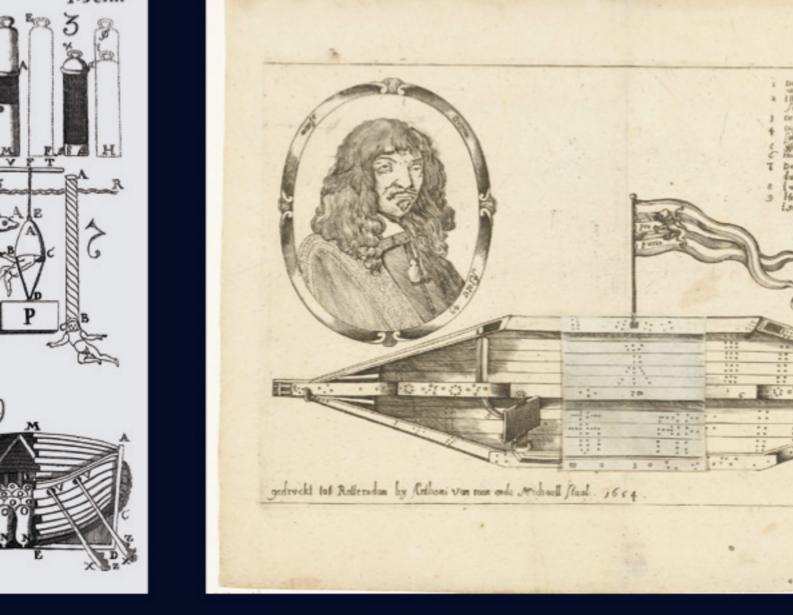
바다 속으로 더 깊이 도달하고 더 오래 머물기 위한 욕망으로부터 인간은 다양한 잠수 장치를 생각해내고 개발하였다. 대다수의 노력들은 실패로 끝났지만 계속되는 도전과 시도를 통해 결국 인간은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로 알려진 마리아나 해구의 밑바닥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해저를 향한 새로운 생각



보렐리가 구상한 **잠수기구**

헌리의 잠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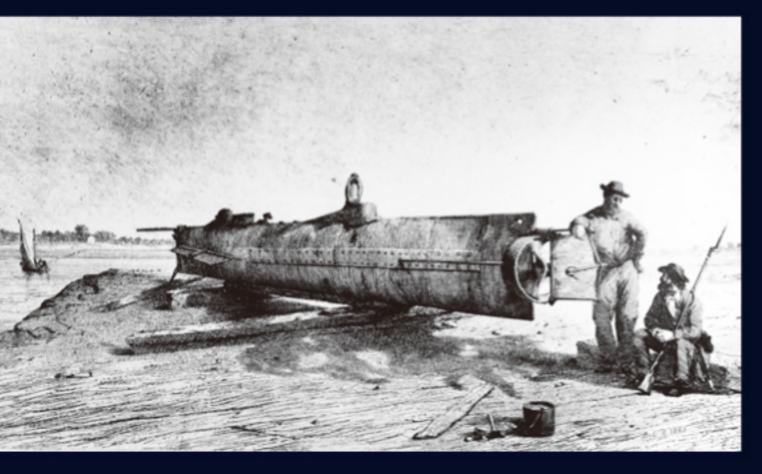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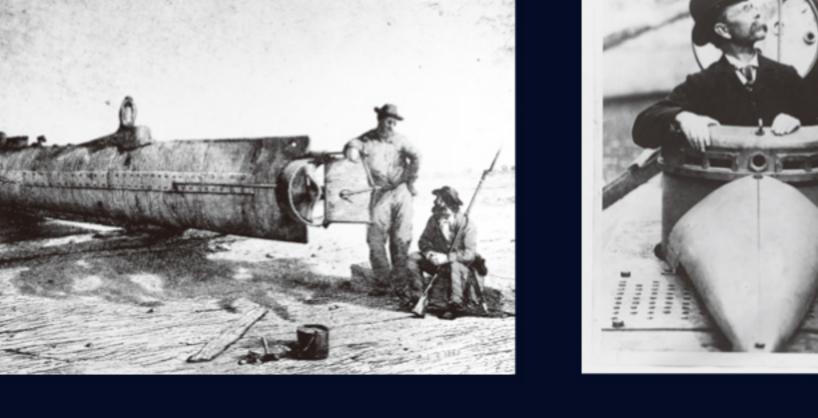
무적함의 꿈 **드송의 잠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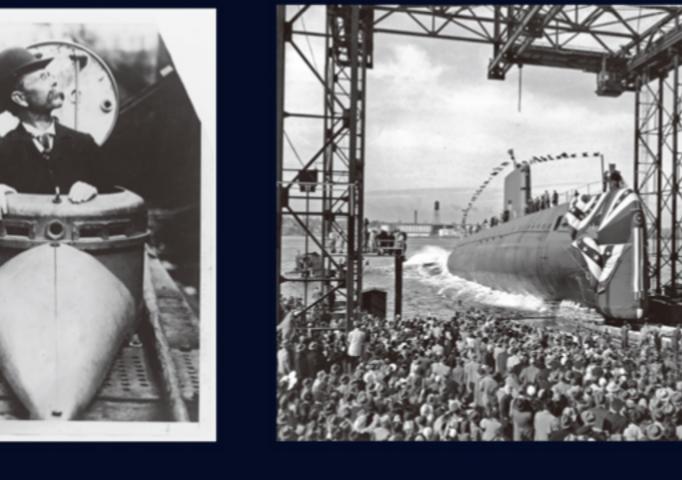


레오나드로 다빈치의 잠수복 구상 삽화

무한한 욕망과 발전







근대식 잠수함의 시작 **노틸러스호** 홀랜드호

세계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가장 깊은 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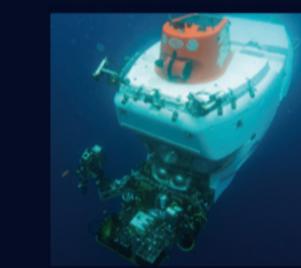
해저 탐사선, H.M.S 챌린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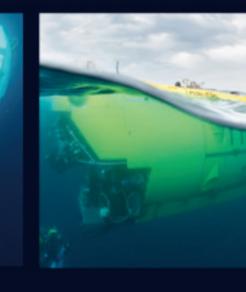


리아나해구 10,911 m에

각국의 유인탐사 잠수정



앨빈호



노틸호





신카이호



자이룽호



해양250호

03

노틸러스 21,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다

미르호

Nautilus 21, take us to the new world

가장 깊은 바다까지 탐사한 인류는 해저세계에 대한 더 이상의 상상을 멈추었을까? 인간의 상상력과 과학은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인간의 상상만큼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발전된 과학기술은 인간의 사고를 확장시킨다. 이제 우리들에게 꽤나 익숙해진 가상현실의 개념을 도입해 새로운 해저세계를 상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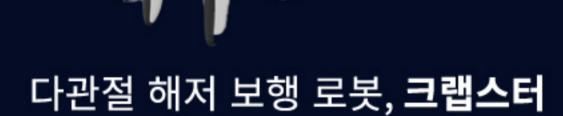
깊고 어두운 심연을 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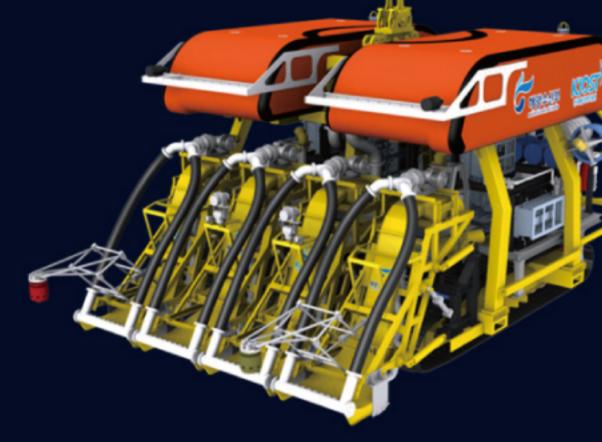
Toward the deep and dark abyss

인간의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해저 세계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점차 현실화 되는 중이다. 수중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 깊고 어두운 해저 공간을 인간이 직접 들어가 탐사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연구가 축적되어 탐사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해저 기지,해저 건축물을 체험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였으며, SF영화 속 수중도시가 가까운 미래에 건설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인간을 대신하는 수중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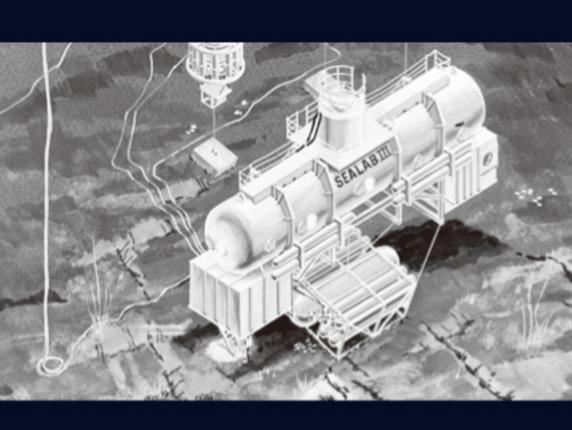
광물 채굴 로봇, **미내로**

새로운 아틀란티스





콘셀프 프로젝트







자크 로게리가 설계한 해저주택 **갈라테**